#### 월요광장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학자란 배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글을 알고 조금 배웠다고 '학자'라고 칭해 주지는 않는다. 깊은 학문을 지니고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불러 주는 호칭이 학자이다. 그래서 인물을 평가하고 인물들의 등급을 매기는 역사책에서도 학행(學行)편에 올라, 학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효행(孝行)·문행(文行)등에 오른 인물들도 모두 훌륭한 인물임은 사실이지만, 최고의 등급은 학행 편에 오른 학자가 가장 높은 호칭이다.

이런 이유로 옛날부터 전해 오는 이야 기가 있다. 세상에서 높은 벼슬은 '정승' 인데, 정승 3인이 나와야 학자 한 사람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진다. 임금 다음 의 최고 지위가 정승인데, 정승 3인을 합 해야 학자 한 사람과 맞먹는다니 학자의 위상을 알 만하다.

# 꽁보리밥(麥飯)에 파국(蔥湯) 뿐이로다

조선 중기 우리 호남에는 말 그대로 학자들이 참으로 많았다. 태인에 살았던 일재 이항(李恒: 1499~1576), 장성에 살았던 하서 김인후(金麟厚: 1510~1561), 광주에 살았던 고봉 기대승(奇大升: 1527~1572) 등은 호남의 학자가 아니라조선을 대표하던 학자들이었다. 김인후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문묘(文廟)에 배향된 한 단계 위의 학자인 탓인지, 한때호남을 남북으로 나눠 북에는 이항이요, 남에는 기대승이라 일컬으며 두 분을 대표적 학자로 칭송한 사람도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평가였다.

이항은 오래전부터 경상도의 퇴계 이황이나 남명 조식 등과도 학문적 교류를 했었고, 뒷날 기대승은 서울에 올라가 벼슬하면서 서울에 온 이황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였다. 특히기대승과 이황의 8년에 걸친 학술 논쟁인 '사단칠정'에 대한 왕복 서찰의 대토론은 조선 성리학 역사에서 금자탑을 이룩한학술적 업적이었다.

이러던 무렵 어느 날 고봉 기대승은 태 인으로 일재 이항을 방문하여 학술 토론을 했었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높았고 나라 안에 이름이 가득하던 기대승이, 벼 슬은 차단하고 농사지으며 학문만 연구하 던 처사(處士) 이항을 찾아간 셈이다. 이항 은 그날 집에서 마당에 널려 있던 보리를 도리깨로 타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집안으로 들어온 기대승은 농부에게 "이 댁이 일재 선생 댁인가요?"라고 물었다. 농부가 그렇다고 답하고는 우선 사랑으로 들어가 계시라며 안내하였다. 일재가 곧 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는 것이다. 한참 뒤 일재가 나타났는데 다름 아닌 그 농부가 바로 일재였다. 그러면서 맞절을 하는데 "저를 사람들이 일재라고 부른답니다"라고 말하더란다.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 보리를 타작하지 않으면 밥 끓일 양식이 없어 제가 양식 준비를하느라 타작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잠시 뒤에 밥상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꽁보리밥과 멀건 물에 파가 둥둥 떠 있는 국이었으니, 이른바 '맥반총탕'(麥飯蔥湯) 이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귀공 자의 신분이던 기대승은 입에 맞는 음식 이 아니었으나,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식사를 마친 일재는 의복을 갈아입고 처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기대승과의 학술 토론을 시작했다. 눈빛이 형형해진 일재는 농부의 모습에서 대학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기대승의 물음에 척척 답을 하면서 성리학의 오묘한 진리를 거침없이 설파하였다고 한다. 당대 석학들의 불꽃 튀는 논쟁이 끝난 후,

기대승은 다시 경건한 모습으로 대선배일재에게 큰 절을 올리며 앞으로 많은 학문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한 뒤 집으로 돌

아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일재 이항 선생, 학행으로 천거받아 많 은 벼슬이 내렸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고,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 손수 농사를 지으 며 진리 탐구에 생애를 걸었다. 많은 제자 들을 양성하여 큰 이름을 얻었으니, 임진 왜란 당시 호남 의병장의 대표이자 학문 이 높았던 건재 김천일 장군이 바로 일재 의 제자였다. 권력과 부가 인간의 가장 큰 욕구이지만, 일재는 권력과 부를 멀리하 고 학문에만 삶의 목표를 두었기에, 끝내 대학자의 반열에 올라 아름다운 이름을 천추에 전하고 있다.

비록 살아서야 가난 속에 도를 즐기고 살았던 선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학 문적 업적을 인정한 국왕은 사후에 일재 에게 문경(文敬)이라는 귀한 시호를 하사 하고 높은 벼슬을 증직하여 학자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일재를 존경 하고 따랐던 기대승 또한 사후에 문헌(文 憲)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높은 벼슬도 증직되었다. 학문이 높은 학자는 그래서 큰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꿈꾸는 2040

# 노사 상호 존중의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



조 선 익 위민연구원 공동대표·노무사

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라고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 존중'을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권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등을 골자

여당과 야당, 노동 단체와 경제 단체, 문재인 정부는 각자의 입장에서 노동 정 책들을 평가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역시 회사 조직이라는 공동체적 입장이 아닌 각자의 입장에서 노동 정책을 평가 하고 있다.

[고 있다. 또한 삼성과 대한항공 등의 노사 갈등 이 갑과 을 관계의 문제로 확산해 사회적 인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실망감도 큰 상태이다.

많은 노동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노사간에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예시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직접 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회사에서 사업주, 노동자의 신분으로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를 30년동안 하게 된다. 사업주는 회사의 규모와상관없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 인건비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연봉3000만원으로 30년을일하게 되면 9억원, 4인 가족이 동일한 조건으로일하게되면 36억원의임금소득이발생하게되는상호간의관계로조직되는것이회사이다.국가전체적으로도회사라는조직의성과는국가발전에중요하다는것을부인할수없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계약 관계 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 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해석 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 가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노동교육원이 발표한 '선진 5개국 학교 노동교육 실태'를 보면 미국 학생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인 '시민론' 등에서 노동조합·노사관계 등을 배운다. 영국과 프랑스는시민교육 과정에서 '노동에서 권리와 책임'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독일은 '노동지향적 일반교육'이라는 관점 아래 사회・실업과목에서 토론・체험식 교육을 한다.

노동 선진국이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호간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칙과 이해 능력을 토대로 형성된 노사 관계에서 나온 노동 정책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는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키는 정규 교육 과정은 없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형식적인 교육만 있을 뿐이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상호간에 지켜야할 규칙을 알지 못하므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노사 갈등이 사회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며

해법을 제시하기도 힘든 것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해 회사의 구성원인 사업주와 노동자는 갈등의 상대방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동 단체와 경제 단체, 정부의 경제사 회노동위원회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반영하여 노동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지 만,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은 근본적인 원 인이 여기에 있다.

사업의 효율성과 노동의 안정성, 일자 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의 노동 정책들이 외형적인 성과 지향에만 초점 을 맞추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또 정부는 갈등적 노사 관계의 큰 책임이 있 다는 점에서 자성해야 한다.

삼성과 대한한공 등의 노사 갈등의 문제를 기업과 사법당국만의 일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서는 안된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늦었지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고, 노사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육적 노동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는 '갑질'이라는 용어를 더이상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 존중' 사회인 것이다.

#### \_\_\_\_ 기 ヱ

# '광주시민의 날' 의미



안 용 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5월은 가족 행사의 달이다. 어린이날 나들이에 이어 어버이날엔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특히 오늘(5월 21일)은 '성년의 날'과 함께 '부부의 날'이 함께 있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부부의 날'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 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 국회에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이 결의되면서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둘(2)이 하나(1)된다'는 의미에서 21일로 정했다고 한다.

'부부의 날'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야 기가 있다. 치열한 전쟁 끝에 성을 함락한 장군이 성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 게 명령했다. "이제부터 이 성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포로가 돼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자들은 모두 생명만은 살려 주겠다. 성 밖으로 나갈 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한 가지씩만 가지고 나가도록 하라." 적군의 장수가 명령한 대로 여자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어떤 여인은 금반지를, 어떤 여인은 은수저를 챙겼는데 아주 작은 체구의 한 여인은 자기 몸보다 더 큰 보따리를 두 팔로 안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 나왔다.

검문을 하던 적군이 보따리를 확인해 보니 병든 남자 한 사람이 들어 있었다. 적군이 화를 내면서 "누구냐?"고 물어보 니 여인은 "비록 병들고 늙었지만 저에게 있어 남편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이 세상 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가게 해주세 요"라고 말했다. 감동한 적군은 남편의 약값에 보태 쓰라고 돈까지 손에 쥐어주 며 내보내 주었다고 한다.

중국 전한의 회남왕 유왕이 저술했다고 알려진 '회남자(淮南子)'에는 '태산지고 (泰山之高), 배이불견(背而弗見). 추호지말(秋毫之末), 시지가찰(視之可察)'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등지면 보이지 않고, 깃털 끝도 자세히 살피면 눈에 보인다는 뜻으로,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잘 살피고 서로의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21일은 또한 53번째 맞이하는 '광주시 민의 날'이다. '광주시민의 날'은 1986년 광주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로 승격한 11월 1일을 기념, 매년 행사가 열려왔다. 그러나 이 날짜가 광주를 대표 하는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 지자 5월 21일을 '광주시민의 날'로 기념 하게 됐다. 5월 21일은 광주 사람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 1980년 5월 당시, 무장한 시민군이 옛 전남도청(광주 시 동구 광산동 일원)에 입성한 날이기 때 문이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맞서 목숨 을 걸고 민주 성지를 지켜낸 이들의 희생 을 기리고, 피 흘려 이뤄낸 민주 사회를 잊지 않기 위해 2010년부터 이날을 '광주 시민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광주시는 매년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선 광주시민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광주 공동체구현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의성장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의미가 더욱 깊다. 이번 정부에 와서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온전한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광주의 5월에도 '평화의 바람'이불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적지 않다. 광주의 5월도 마찬가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진정한 의미의 5월을 완성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서 언급한 회남자의어구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익숙한 것이어도 다시 한번 잘 살피고, 들리지 않는소리에도 귀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한다.

'광주시민의 날'과 '부부의 날'을 기념 하며 부부는 부부대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를 갖고, 광주시민은 광 주 정신을 담아 만들어진 시민의 날인만 큼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며 진정한 의미의 광주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날을 보내길 바란다.

## 社 說

# 오월 여성들의 저항활동도 제대로 평가해야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 제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80 년 5월 그날 새벽, 도심의 새벽 공기 를 가르며 서늘하게 울려 퍼지던 한 여성의 애절한 목소리를 광주 시민 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 을 것이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전춘심(68) 씨가 지난 18일 아침 9시30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마련된 추모 공연에서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올랐다. 5·18 가두방송의 주인공 차명숙(58·경북 안동) 씨도 17일 밤 광주금남로 전야제 무대에 섰다.

보안부대 등에 끌려가 잔혹한 고문을 당했던 차 씨는 "광주에 오는 것이어렵고 무서웠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5·18 당시 피해를 입었던여성들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수많은여성들이 직접 항쟁에 나섰지만 남성시민군처럼 총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OILI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군의 성범죄를 정부가 직접 밝혀내겠 다고 약속한 것은 의미가 있다. 문 대통 령은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이 해 배포한 메시지에서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 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 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광주에서도 그동안 남성 시민군의 보조자로 여겨졌던 5·18 여성들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기록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에 따르면 전체 5·18 유공자 4215명(사망·행불자제외) 가운데 여성은 212명(5.02%) 뿐이다.

최근 성폭력 피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또다시 숨지 않도록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5·18 항쟁 당시 여성들의 피해뿐 아니라 저항 활동을 역사적 사실로 복원하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 검찰에 의한 '5·18 유죄' 재심 청구 의미 있다

5·18 민중항쟁에 참여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38년 동안이나 전과자라 는 오명을 쓰고 살아온 시민들이 아직 도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검찰이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해 주목된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주 대검으로 부터 5·18 관련 사건으로 재심 청구를 의뢰받은 112명(86건) 중 고 홍남순 변 호사 등 4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5·18 당시 16명의 수습위 원과 함께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 행정지로 풀려났다.

광주지검은 재심 청구 대상이지만 관할이 아닌 53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 역 검찰로 사건을 보내 판단하도록 했 다. 5·18 당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 보통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402명(160건)에 이른다. 이들 중 284명은 1995년 '5·18 특별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은 검찰이 나머지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개월간의 자료 수집과조사,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설득을 거쳐 직권 청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재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대다수는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하지만 5·18 당시상황을 기억조차 하기 싫다며 거부하는 유족도 있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보상 청구와 함께 5·18 보상법 및 5·18 유공자법에 의해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5·18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검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신청 기간이 지나이들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5·18 보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 無等鼓

남북 화해의 뒤안길

명령의 권능을 해석하는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다. 20세기 이전과 이후로나뉘기도 하는데, 비교적 익숙한 것이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하급자는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시각이다.

과거 히틀러 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인 '지도자 원리'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는 국민 공동체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인간적 화신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국민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 같은 원리는 '지도자의 권

위는 아래쪽으로, 책임은 위쪽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전파됐다.

실제로 독일에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병원선을 침몰시킨 잠수함장이 1921년 독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상급자의 명령이하급자를 엄호한다는 원칙을 모든 문명국은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원칙은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적으로 반전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판'으로 불리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법정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은 개인의 형사 책임 을 면제해 주지 못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는 명령을 받더라도 저항해야 한다'는 '뉘른베르크 원칙'은 이후 국제형사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명령과 복종'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가치관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에 '남북 화해'의 봄기운이 찾아왔기때문이다. 과거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각종 도발을 감행해 왔다. '판문점 도기 만행'에서부터 최근의 '천안함 폭

침'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발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비롯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문제는 그 도발이 누군가 상급자가 명령한 것이고, 하급자는 그 명령을 실 행했으며 그결과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 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령권자와 명령을 수 행한 하급자에 대한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때 문이다. 진정한 평화와 화해는 사과와 피해 복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 는가.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田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의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변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